파주목사 '박태보 마애(磨崖) 선정비' 발견 현장조사 보고서

파주문화원 부설 파주학연구소

□ 발견 및 확인 경위

• 도로 확장 시 토사가 밀려 마애비의 상당부분을 덮었으나 이곳에 400여년을 거주했다는 최초 제보자(이경성)의 제보로 이를 확인하게 됨.
• 광탄에 거주하는 최초 제보자 이경성씨가 김순현(파주신문 대표, 파주학연구소 위원)과 한기황(파주에서신문 이사장), 정헌식(파주문화원 부원장)씨에게 제보하여 2025년 8월17일 현장조사를 실시함. 토사에 묻힌 흙을 제거하자 명문이 드러남. 익일 파주문화원 부설 파주학연구소장 및 문화원국장 참관함.

□ 선정비 내용

<table>
<tr><td> </td><td> </td></tr>
<tr><td>마애석각</td><td>牧使 朴公泰輔 □(萬)世不忘</td></tr>
</table>

• 명문은 "牧使朴公泰輔□世□忘"임.
 - '牧'의 手 부수와 '使'의 人부수는 탈락되었음.
 - 앞의 □은 '萬' 혹은 '永'일 것이나 잔존한 글의 획을 보면 萬일 가능성이 짙음.
 - 뒤의 □은 일반적인 선정비 명문으로 '不'일 것임.
 - 따라서 현재로서는 **"牧使朴公泰輔萬世不忘"으로 파악됨.**
• 측면에 각석한 시기가 적혀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글씨가 보이지 않아 탁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옆면 토사를 제거하면 글씨가 있을 가능성 있음.
• 소재지: '파주시 광탄천로 391' 도로변 바위 암벽 하단부

□ 선정비주: 파주목사 朴泰輔
• 생몰연대: 박세당의 아들이며 박세후에 입후됨. 생몰년은 1654-1689.
• 박태보는 이천현감(伊川縣監)을 시작으로 부수찬·교리·이조좌랑, 호남의 암행어사 등을 역임함
• 호남에 암행어사로 다녀온 뒤에 중앙에 보고한 과감한 비리 지적에 조정의 대신들이 감탄했으며, 호남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도 진정한 어사라는 찬사를 받음.
• 박태보는 1687년 파주목사에 부임해 선정으로 명망이 자자했으며 그 해 교하현이 파주목

에 통합되자 환곡의 문제가 발생해 다시 교하현으로 복설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지만 박태보가 이를 원만히 처리함.

• 박태보는 모친(윤증 누이, 박세후 부인)이 파주에 거주했기에 파주목사를 자임했으며, 이해 박세당, 윤증, 박세채가 모두 파주관아에 모여 박태보와 이틀간 환담을 함.

• 기사환국으로 율곡과 우계가 문묘종향에서 출향되자 자운서원과 파산서원에도 출향을 해야했으나 파주목사 박태보는 조정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이를 존속시켜나가 인책, 면직의 원인이 됨(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)

• 박태보가 사임을 하고 1689년 인현왕후 폐위사건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림. 이세화, 오두인, 박태보가 소두로 지목되자 박태보는 살이 찢기는 국문을 당한 후 옥독(獄毒)으로 귀양길 도중(노량진)에 사망함.

• 이 해 7월 직첩은 받았으나 신원은 안됨.

• 1694년(숙종20년) 신원 및 증직됨.

□ 입비연대

• 이번 발견 각석의 연대는 미상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.

• 파주목사 재직시 임진강 각석(기록 확인), 박규 묘역에 박태보 글씨가 남아 있음.

• 1702년 전남 신안에 휼민선정비가 세워진 사례가 있음.

- 직접 지방관으로 다스린 것은 아니나 신원 후 암행어사의 공적과 폐위사건 반대를 한 절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판단됨.

- 선정비는 시기가 경과된 후 세워지는 경우는 드무나 박세채의 경우 이임 때 승차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건비하기는 매우 부담스런 경우임. 다만 1689년 5월4일에 졸하고 7월에 직첩을 돌려주었으나 신원과 증직은 이로부터 6년 후 1694년 임.

• 직첩은 돌려받았지만 여전히 신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비에 목사(牧使)라는 명칭의 사용은 불가능함. 이에 6년 후인 1694년(숙종20년) 갑술년(갑술환국)에 선정비가 각석된 것으로 판단함.

- 선정비의 건립은 수령칠사에 합치되어야 하므로 이는 선정을 펼친 수령의 기준임. 박태보의 경우 합치되지만 이임한 후 곧장 상소를 올려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바로 건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음.

- 왜냐하면 선정비는 지역 사림과 향당을 통해 경비 확보, 석수와 석각 방식, 찬자 지정 등 제반절차를 논하기 때문임. 마애 선정비의 경우는 제반 경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정치적, 경제적 의미가 건비과정에 함축되었을 것이 분명함.

• 마애불망비 연대 추정

직첩 환수는 1689년 7월에 되었지만 죄과가 인정된 상태에서는 세우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며, 이에 6년 후 신원과 증직이 결정된 1694년 세웠을 가능성이 농후함. 이런 경우 비전(碑錢)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기에 경비절감을 위해 마애각석을 한 것으로 판단함.

□ 박태보 마애선정비의 특징과 가치(박태보거사비 설치기록 확인)

• 파주에서는 유일한 마애선정비임.

• 1689년(기사년, 기사환국) 인현왕후 폐위사건으로 절의를 지킨 이세화, 오두인, 박태보의 생사 궤적은 파주에서 확인 가능함.

- 이세화의 묘는 파주에 있고 오두인은 귀양 도중 파주 의주길에서 죽었고, 박태보는 파주목사를 재직했기에 이들의 스토리콘텐츠가 고스란히 파주에 남아 있음.

• 마애선정비는 신원·증직된 후 의주로 변에 각석이 된 것으로 추정(1694년).

• 박태보 거사비의 존치 여부가 <승정원일기>에 남아 있음을 확인함. (거사비는 선정비, 불망비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.)

> 상이 파주(坡州) 주정소에 이르러 오시(午時)에 막차에서 나왔다. (중략)
> 상이 길가의 비석을 가리키며 이르기를, "이는 누구의 비석인가?"하니, 이성룡이 아뢰기를, "**박태보(朴泰輔)의 거사비(去思碑)**입니다." 하자, 상이 이르기를,
> "일찍이 이 고을 목사(牧使)를 지냈는가?"하니, 이성룡이 아뢰기를,
> "박태보가 이 고을 목사가 되어 치적이 으뜸이었습니다."(승정원일기 영조7년 9월7일)

- 이 능행차는 파주목을 들린 후 돌아갈 때의 일로써 이 해 8월에 소주정을 광탄에서 분수원으로 변경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분수원이 아니라 여전히 광탄에 소주정소를 설치한 것임. 따라서 의주로 광탄을 지나다 지금의 부곡3리 인근에 소주정소를 설치한 후 다시 출발할 때 길가에 있던 마애 **박태보 거사비**를 본 것이 확인됨.

• 석각 '牧使'를 비롯한 글의 일부분에 주칠이 남아 있음.

• 따라서 이 마애비의 발견으로 의주로, 광탄 소주정소의 대략을 짐작하게 했으며 당숙인 남계 박세채의 남계영당의 위치도 추정가능하게 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음. 이에 보존조치가 시급히 요구됨.

-파주학연구소 차문성 소장 작성-